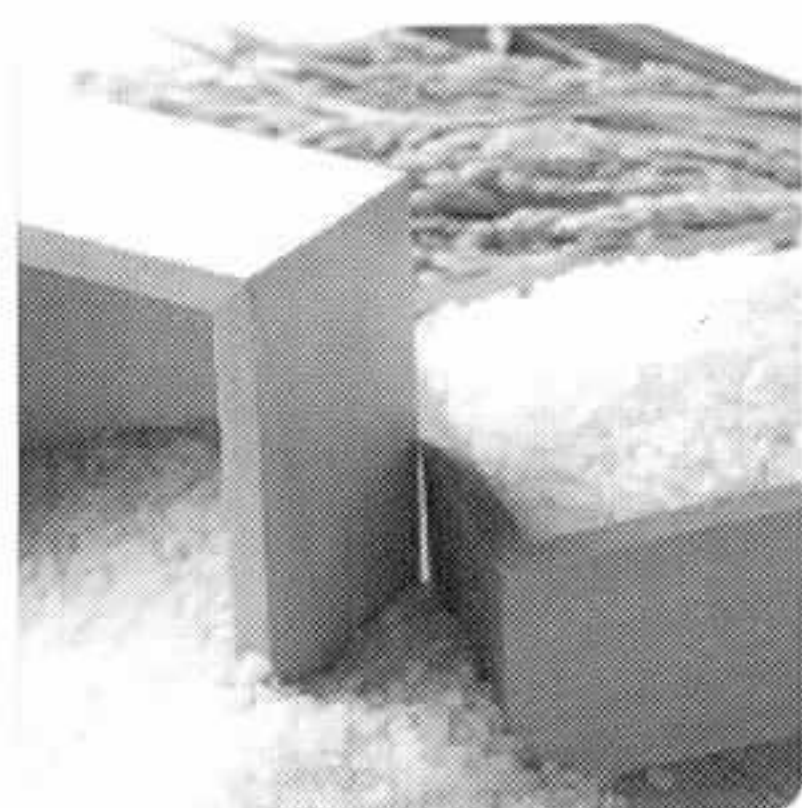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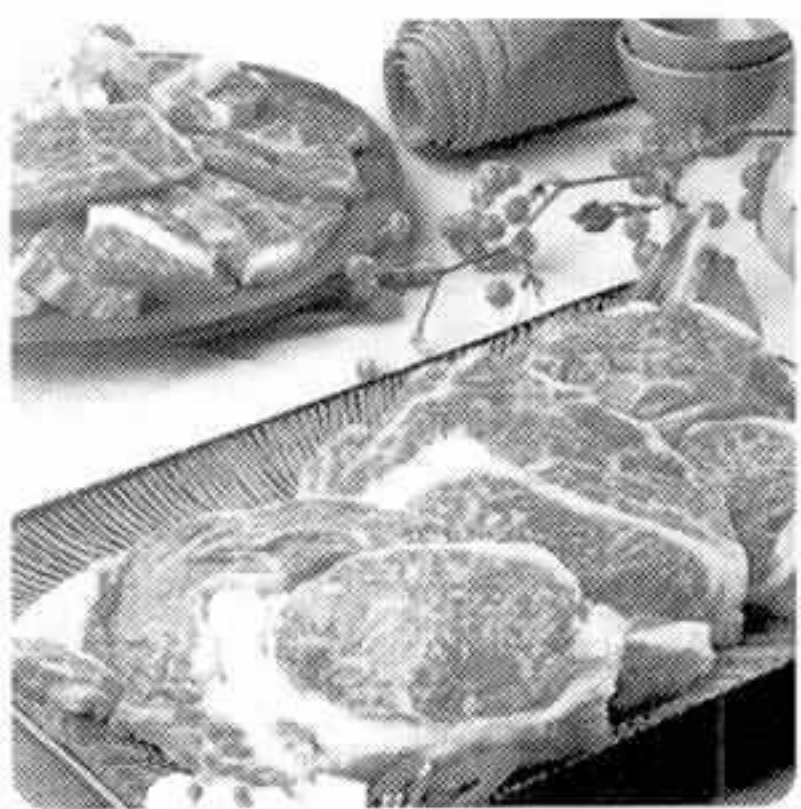


한·EU FTA 등 자유무역협상 추진동향(推進動向)



1. 추진경과(推進經過)

① 협상출범('07. 5. 6) 이후 6차례 협상을 개최하였으며, 양측 입장차가 큰 상품양허협상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

- 6차 협상(1월 21일~2월 1일, 서울)에서 상품양허, 자동차 기술표준 협상은 진행하지 않고 주로 협정문과 공산품 원산지 논의【표 1. 참조】

* 제7차 협상은 4월 중 개최 예정

2. 제6차 협상 주요결과(協商 主要結果)

① 상품·무역규제(商品·貿易規制)

- 우리가 제안한 농산물 세이프가드(ASG) 조항을 EU측이 수정 의견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, 원안대로 합의함.

- ASG 적용 품목은 사전에 정한 발동물량을 초과해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 관세를 자동으로 높이기로 합의

- 다만, ASG 발동기준, 발동세율 등 품목별 구체적인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양허협상 과정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.

- WTO 농업협정의 특별긴급관세(SSG), 수입부과금(mark-up) 등 WTO 협정상 제도는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추진

② 위생·검역(衛生·檢疫 / SPS)

- 지난 협상에서 협정문의 대부분 조항에 합의해 근접한 상황이며, 이번에는 지역화 인정, 수출작업장 승인 문제를 주로 논의

【표 1】 일정별 주요 논의 내용

일 정	주 요 내 용
제1차 협상('07. 5. 7~11, 서울)	• 협상일정, 협정문 작성방안, 양허방식 등 협상의 기본적 틀 논의
제2차 협상('07. 7.16~20, 브뤼셀)	• 상품 양허안, 원산지, 지식재산권, 위생·검역 등 전 분야에 걸쳐 본격적인 협상 개시
제3차 협상('07. 9.17~21, 브뤼셀)	• 수정양허안을 제시하고 EU측과 품목별 협상 시도,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시
제4차 협상('07. 10.15~19, 서울)	• 품목별 기술협의를 개최하여 민감품목 중심으로 양허안 작성 배경을 설명 - 곡물, 과일, 채소분야 핵심품목에 대한 다양한 예외적 조치를 요구, 특히 돼지고기, 낙농품 등 일부 축산물은 국내 업계의 불만을 설명 • EU측 수출보조금 문제 지적
제5차 협상('07.11.19~23, 브뤼셀)	• 상품양허, 자동차 표준, 공산품 원산지 기준이 쟁점으로 부각 • 농산물은 민감품목 예외적 조치에 대한 우리측 요구사항을 양허 개선안과 함께 묶어 조건부 일괄타결안 제시
제6차 협상('07. 1.28~2. 1, 서울)	• 농산물 세이프가드(ASG) 도입에 합의하고 기존의 WTO 특별긴급관세(SSG)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 • 지역화 인정 절차, 일반 농식품 지리적 표시 등록방식에 논의 일부 진전

■ 우리는 EU측이 5차 협상결과를 반영해 수정한 통합협정문안에 대한 **우리 의견을 반영한 재수정문안**을 작성하여 제시

- **지역화 인정절차 관련 문안***은 EU측 취지와 근접한 내용으로 작성했으며, 이를 기초로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※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고려하여 인정 절차를 마련하되, 2년 정도 상호 이해 제고 활동(세미나 개최 등)을 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

■ **육류 수출작업장**은 EU측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여 **우리측이 전면 삭제를 요구**, 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기로 함.

③ 원산지 기준(原產地基準)

■ **신선 농산물(1~14류)**의 경우 자국에서 기른 것에만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양측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

■ 우리는 **가공식품(15~14류)**의 대EU 수출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3국산 원료를 사용한 경우도 특혜관세를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

- 아직 EU 입장이 통일되지 않아 다음 임시회의에 논의 예정(3월 초)

④ 지리적 표시(地理的表示 / GI)

■ 지적 재산권 분야 전반에 걸쳐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, GI에 대해서는 **보호대상 품목의 범위에 관해서만** 다소 진전

- 양측은 **일반 농식품**의 경구 각기 상대국에 GI 보호를 요청하는 품목 요약서를 상호 제공하고, 문제가 없으면 각자 해당 법규*에 따라 등록한 후 보호하기로 합의

※우리는 일반 농식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, 주류는 주세법으로 보호

- **포도주·증류주**는 EU측의 보호품목이 우리에게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순차적으로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

■ 지리적 표시의 **보호수준, 지리적 표시와 상표와의 관계**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**2월 말까지 EU에 제공할 예정**

⑤ 국가보조(國家補助 / State aid)

■ 양국이 향후 지급을 금지하는 **악성보조금**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, 모든 농업관련 보조금은 동 협정문이 규정하는 금지대상 보조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

3. 평가 및 대응방향(評價·對應方向)

① 이번 협상은 중요한 쟁점분야인 **상품양허, 자동차 표준 분야** 협상이 개최되지 않아 **외견상 큰 진전은 없었음.**

- 입장 차이가 큰 **공산품 원산지 기준** 협상에서 우리측의 상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EU측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응해 협상에 **큰 진전이 없는 상태로 종료**

② **상품 이외 분야 협정문 논의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진전이 있었으며, 협상 마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할 단계임.**

- 특히 **농업분야**의 경우 EU측이 구체적 복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우리도 **최종단계 전략을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.**
 - EU측이 관심품목 리스트를 제시하면 곧 품목 담당자 및 업계와 협의를 개시하고, 우리측 최종 입장을 면밀히 검토
 - EU측 요구는 주요 품목에는 한·미 FTA 수준으로 양허하라는 것이 핵심이므로, 이를 중심으로 업계와 긴밀하게 협의 추진
 - EU측이 수용하겠다고 한 농산물 **세이프가드** 및 **수입쿼터(TRQ)** 등 예외적 조치 운영을 위한 상세 사항도 재검토 추진
- **위생·검역 분야는 작업장 승인**과 관련한 우리 입장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논리를 보강하고, 3월 이전 EU측이 비공식 회의 등을 통해 타결을 시도해 올 가능성에 대비 필요
- **지리적 표시는 보호수준 및 상표와의 관계**에 관해 특허청과 아직도 이견이 있으므로, '08. 2월말까지 우리 입장을 확정할 필요.

◎ 그 밖의 FTA 추진 동향

1. 한·멕시코 FTA

① '05. 9월 양국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SECA* 협상 추진에 합의

※SECA(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: 전략적 경제보완협정)는 상품의 범위를 한정하여 협상하는 방식으로 FTA보다 무역자유화 수준이 낮은 협상

② '06. 2월 협상개시 후 3차례 SECA 협상 진행

- 당초 '06년 타결목표로 SECA협상 추진 중 제3차 협상('06. 6월) 이후 양허의 범위에 있어 양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, 협상 중단
- 우리측이 공산품 및 일부 농산물을 포함한 양허안을 제시한 반면, 멕시코측은 공산품의 일부만을 포함한 양허안 제시

③ '07. 7월 멕시코측이 SECA 대신 높은 자유화 수준의 FTA로 변경추진을 희망하여 양국은 제1차 FTA 협상 개최('07. 12. 5~7)

- 이번 협상에서는 **멕시코측이 제시한 협정문 잠정안을 검토**하고, 양허협상 일정 등 **향후 추진계획을 논의**

④ 제2차 협상은 '08. 3월 중 서울에서 잠정 개최 예정

- 상품양허 협상에 대비, **멕시코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**

※대멕시코 농산물 수입실적('06): 4천만불
※주요 수입품목 : 쇠고기, 돼지고기, 맥주, 데칼라, 커피 등

2. 한·캐나다 FTA

1) 추진현황(推進現況)

① '05. 7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협상 진행

- 두 차례 상품분야 실무협상('07. 6월, 9월) 개최 포함

② 1,451개 세 번 중 1,419개에 대한 합의 도달

- 쌀(16개 세 번), 일부 낙농품·가금육, 고추·마늘, 양파, 인삼 등 192개 세번에 양허제외 합의
- 현재 쇠고기·돼지고기의 양허기간, 보리, 감자, 대두, 천연꿀 사료용 근채류 등의 무관세 물량에 대해 미합의된 상태

2) 평가 및 향후전망(評價·向後展望)

- ① 캐나다측은 한미 FTA 협상과의 형평성 및 같은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 타결의 지연요인으로 작용
- ② 보리, 대두, 감자, 천연꿀, 사료용 근채류 등에 대한 무관세물량(ASG, TRQ)은 국내수급상황, 과거수입실적, 여타 FTA와 협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협의할 계획
- ③ 쇠고기, 돼지고기 등 캐측 최대관심품목에 대해서는 협상 최종단계까지 우리측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

※캐나다측은 쇠고기, 돼지고기 등 자국관심품목에 대해 최소한 한·미FTA 수준의 대우 요구

3. 한·인도 CEPA

1) 추진현황(推進現況)

- ① '06. 3월 1차협상 개최 이후 10차례 협상 개최(1차례 실무협의 포함)
 - 1차 협상에서는 협상시한, 분과구성 등 협상의 전반적인 틀에 대해 논의
 - 2차~6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안, 상품 자유화 방식을 논의
 - '07. 7 제7차 협상시 양측 제시 상품양허안에 대한 일반적 입장 교환
 - '07. 8 인도측은 서한을 통해 우리 쌀·육류·사과·배·감귤 등 민감 농산물 포함, 732개 농산물에 대해 양허개선 요구
 - '07. 12월 제9차 협상시 우리측은 인도측 양허개

선 요구품목에 민감농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양허개선이 쉽지 않다는 입장 표명
- 이에 따라 인도측은 쌀·쇠고기·고추·마늘·양파·참깨·캐슈넛·망고·홍차 등 77개 농산물을 핵심품목으로 축소, 양허개선 요청

2) 평가 및 향후전망(評價·向後展望)

- ① 제9차 협상시 인도측의 기대수준을 낮춰 양허개선 대상 농산물 품목수를 대폭 감소시킨 것은 성과로 평가
 - 다만, 핵심 양허개선 대상품목에 쌀·쇠고기·양념 채소류 등 초민감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신중한 대응 필요
- ② 우리 농산물 양허개선안은 품목별 민감성, 개방시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인도의 농업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할 계획

① 제10차 협상은 '08. 4월 중 서울에서 개최 예정

